

建築教育의 현재와 미래

李 好 璣

(建國大 建築工學科)

1. 序

우리나라의 건축 교육은 해방 후에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55개 대학에 건축공학(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서 배출하는 인원이 연간 4천 여 명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에 비해 너무 많은 수의 인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주택건설에 치중하고 있는 국내 실정이나 해외건설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만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면 이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良質의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로 부각된다. 물론 극히 일반적인 개념교육이라던 가능하지만, 현재의 사회적 요구는 그렇지 않다.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건축관계 회사들이 과거의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 조직화·경영합리화·선진화 개발 작업을 이행하고 있고 프로젝트의 대형화·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대학교육도 그 이상의 교과과정으로써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세계 각국의 도전에 대처할 선진국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대학 건축교육의 조직·운영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독자적인 운영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로 기존의 교육과정으로는 새로운 재료, 시스템, 설계 접근방법, 장비와 기술, 컴퓨터의 활용 등에 대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학 건축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외국 대학의 건축학 교육과정과 비교·검토하고 건축교육의 각 분야에 중사하고 있는 대학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성있는 앞으로의 대학 건축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본다.

2. 現況과 問題點

대학에서의 건축교육의 방향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것을 현재와 미래의 필요 조건들에 대입해 볼 때 그 문제점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 건축교육의 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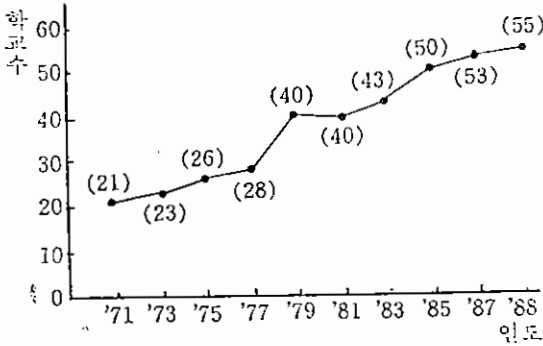
1) 人的 現況

'88년 현재 건축공학(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 수는 55개이고, 총 재학생 수는 3,9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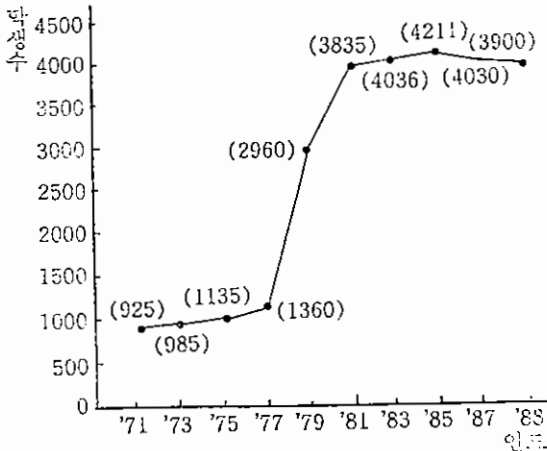
에 달하고 있다.

〈그림 1〉,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학교 수와 학생 수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 학교 시설 환경과 교수 수, 교육형태 등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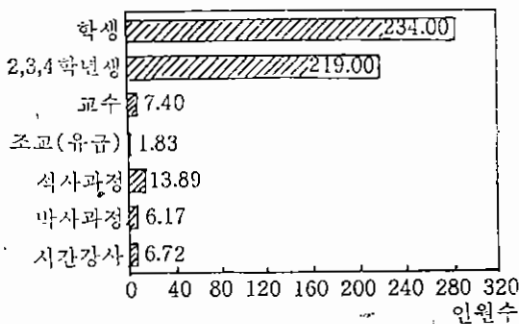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건축공학(화)과 설치 대학 수



〈그림 2〉 연도별 학생 수



〈그림 3〉 인적 분포(조사대상 대학의 평균치)



〈표 1〉 건축과 교수·학생의 적정인원 수에 대한 조사 결과

구분	학부	석사	박사	비고	
건축과 학생수	43.3	19.7	9.2	전체 응답 교수 평균값	
교수 수	9.5	5.0	4.7		
시간강사 수	6.0	3.5	2.6		
교수의 주당 시간	6.8	3.0	2.6		
분야별 전공 학생수	계획설계	27.0	13.8	3.5	각 분야별 담당교수 응답 평균값
	구조	20.0	4.6	2.0	
	재료시공	25.0	6.5	3.8	
	환경공학	10.8	4.4	2.2	
도시조경	9.2	4.2	2.6		

교수 1인당 약 40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조교의 수는 2명 이하이며 전임교수 수만큼의 시간강사로 강의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최소한 10명 정도의 교수가 있어야 적절한 교육이 수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한 대학의 학생 300여 명을 건축이라는 한 테두리에 묶어 교육하기보다는 학생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건축학 전공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2) 教育內容

교육현황에 대한 기본 척도는 과목 수와 학점 및 시간, 즉 커리큘럼이라 할 수 있다. 교육현황을 요약하여 뒤의 〈표 2〉에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의 학점 기준은 1973년 실험대학 운영 및 1981년 이후 모든 대학이 140학점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초과학점 취득이 가능하므로 학부과정 4년 동안 약 140~160학점을 취득해야 하고, 이중 전공학점은 약 70~100학점을 취득하고 있다. 특히 전공과목의 경우 1학년 때에는 1~2과목만 개설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거의 대부분의 전공과목은 2~4학년에 배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4학년 2학기에는 학생들의 수강과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전공과목은 약 2년 반 동안에 집중적으로 수강하게 되는 셈이며, 그 기간에 다루어야 할 과목도 매우 많아 약 20~25개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각 학년별 학점과 과목별 학점 배분을 보면, 거의 모든 과목이 3학점으로 전체 24개 과목 중

〈표 2〉 건축공학(학) 교육과정 현황

분 야	주요 과목	학점 분포 (%)				학점	시간	개 설 학년 (%)				전필 (%)	선택 (%)	학생수
		1	2	3	4			1	2	3	4			
구 조	구조역학	3	26	71	0	2.7	2.9	6	58	33	3	58	42	67.2
	R/C 구조	0	9	91	0	2.9	3.1	0	0	82	8	22	78	56.5
	구조선계	11	11	78	0	2.7	3.0	0	0	0	100	11	89	65.0
	구조해석	0	18	82	0	2.8	2.9	0	20	30	50	27	73	77.4
	전관구조	0	7	93	0	2.9	3.1	0	0	15	85	7	93	54.7
	특수구조	0	0	99	0	3.0	3.0	0	0	0	100	0	100	36.3
도시조경	조 경	0	50	50	0	2.5	2.5	0	0	25	75	0	100	51.7
	도시계획	0	30	70	0	2.7	2.7	0	0	20	80	0	100	52.3
	단지계획	0	18	82	0	2.8	2.9	0	10	50	40	20	80	74.7
	도시설계	0	99	0	0	2.0	2.0	0	0	0	100	0	100	30.0
환경공학	건축설비	0	18	82	0	2.8	2.8	0	5	40	55	14	82	58.4
	건축환경	5	30	65	0	2.6	3.0	0	66	17	17	19	81	56.5
재료시공	시공적산	4	26	70	0	2.7	2.9	0	0	31	69	19	81	67.8
	건축재료	11	33	60	0	2.5	3.3	7	29	50	14	13	82	41.9
건축계획·설계	건축선계	0	7	88	5	3.0	5.8	0	27	36	37	77	23	78.5
	의장조형	4	32	64	0	2.6	3.1	5	50	36	9	12	88	55.1
	건축계획	0	42	58	0	2.6	2.7	0	42	39	19	47	53	68.7
	건축사	0	10	90	0	2.9	2.9	3	22	56	19	12	88	55.8
	도학표현	0	60	30	0	2.2	2.6	80	20	0	0	100	0	50.8
	건축법규	0	8	92	0	2.9	2.9	0	0	45	55	17	83	66.6
	일반구조	0	30	70	0	2.7	2.8	0	75	25	0	58	42	54.0
	건축총론	0	33	67	0	2.7	3.0	0	100	0	0	33	67	49.0
	주거론	0	25	75	0	2.8	2.8	25	75	0	0	25	75	42.7
건축제도	0	33	67	0	2.7	5.0	33	67	0	0	100	0	80.1	

4개 과목(학점 평균이 2.5 이하인 조경, 도시설계, 건축재료, 도학표현)만이 2학점으로 되어 있다.

위의 〈표 3〉에서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은 과목의 특성에 관계없이 대부분 주입식 강의법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교수수와 단위 학급 규모(학생수)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수·학습 방법은 내용뿐 아니라 수강인원, 시설 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교수수의 확보와 과목별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 배치가 필요하다.

3) 教育課程 運營體制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것은 학교교육과정 현상과의 괴리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지

적한 대로 교육이 현장의 전문화·특수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는데, 그 원인은 관련 교육내용의 불합리성과 교육방법의 문제, 그리고 위의 〈표 3〉에 나타난 각 분야별 배분의 불합리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든 과목이 개별적인 각론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특수 분야 교육에 관한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것도 논의되었다. 이와 동시에 건축교육의 특수성을 수용할 수 없는 현재의 교육편제 및 실험대학 운영에 따른 학점수의 부족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공별로 과목의 안배와 학년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설계 분야나 구조 분야를 제외하고는 매 학년 연계된 분야의 교육이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설계나 연구소와 같

〈표 3〉 교수·학습 방법 및 적정 학생 수에 관한 조사 결과

(단위 : %)

분 야	주요과목	주입식강의		개별지도		세 미 나		실험·실습		강 의 + 나		강 의 + 실 습		과목별 정수 (명)
		C	I	C	I	C	I	C	I	C	I	C	I	
구 조	구조역학	61	12	0	0	6	6	0	6	27	64	6	12	41.4
	R/C구조	85	22	0	0	0	0	0	0	0	56	15	22	41.4
	구조설계	60	7	7	7	0	14	0	0	26	65	7	7	41.3
	철골구조	78	10	0	0	11	0	0	10	0	50	11	30	34.9
도시조경	조 경	0	0	0	0	0	0	0	0	100	100	0	0	20.0(1)
	도시계획	60	0	0	0	0	0	0	0	40	63	0	37	44.0
	단지계획	75	17	0	0	0	17	0	0	25	17	0	49	47.0
	도시설계	100	0	0	0	0	0	0	0	0	0	0	100	25.0(1)
	제 개 발	100	0	0	0	0	0	0	0	0	0	0	100	—
환경공학	건축설비	75	0	0	0	9	9	0	0	9	9	9	82	43.0
	건축환경	50	0	6	7	13	7	0	0	18	19	13	67	35.0
재료시공	시공적산	43	14	0	0	0	0	0	14	14	14	43	58	47.5
	건축재료	40	25	0	0	0	0	20	50	0	25	40	0	40.8
건축 계획 · 설계	건축설계	9	2	50	49	5	14	11	9	0	6	25	20	28.2
	의장조형	24	12	12	12	12	12	0	6	24	29	28	29	36.4
	건축계획	62	5	0	0	5	5	0	0	28	81	5	9	42.4
	건축사	71	11	0	0	10	22	0	6	14	55	5	6	34.9
	도학표현	0	0	0	0	0	0	33	0	0	0	67	100	35.0
	건축법규	100	33	0	0	0	33	0	0	0	34	0	0	41.3
	일반구조	100	33	0	0	0	0	0	0	0	33	0	34	43.3

* C : 현재의 교수·학습 방법
I : 이상적인 교수·학습 방법

은 특정 분야로의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많은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의욕과 필요성 인식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된 지적으로 수학 연한의 연장, 건축과내 전공의 분리, 대학원 과정과의 연계 등이 논의되었고, 근본적으로는 공대에 속해 있는 건축공학과와 명칭과 방식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4) 教育施設

교육시설의 증족은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외적 조건으로서 보다 발전적인 학습방법의 시도와 적용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실습을 전제로 하는 건축교육에 있어서 적절한 시설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위의 〈표 4〉는 조사대상 대학의 시설 현황에 대한 집계이다.

여기에서 보던 전반적으로 실습의 기본이 되는 설계실의 경우만 대략 갖추어져 있는 편이나 (물론 전공과목에 접하지 않는 1학년과 대학원의 경우는 여전히 거의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나마 수용인원이 40명이 넘는 대단위 교실들이다. 그리고 교육현황에서 보듯 주입식 강의법을 지원하는 전용 강의실은 1인당 약 0.5~1평 정도의 규모로 시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의 특수교실이나 실험실은 평균 1개 이하여서 과목별로 필요한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계획·설계 분야는 그나마 설계실이 갖추어져 있는 데 반해 그밖의 분야를 위한 공간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분야별 편중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표 4〉 시설 현황

구	분	갯수(개)	수용인원(명)	규모(평)
전용강의실		1.9	102.47	51.8
세미나실		0.7	33.75	23.3
설계실	1 학년	0.7	49.0	51.1
	2 학년	1.6	48.8	57.2
	3 학년	1.6	52.9	52.2
	4 학년	1.5	58.8	59.3
	대학원	0.1	—	—
구조실험실		0.65	34.3	52.5
CONC. 실험실(재료)		0.5	40.0	48.5
환경실험실		0.5	33.3	26.8
모형제작실		0.5	18.3	39.0
건설시설		0.1	—	—
사진실		0.8	10.1	8.6
컴퓨터실		0.7	11.3	11.3
자료실		0.7	15.6	14.4

* 갯수는 전체 설문대상 학교의 평균값
 * 수용인원과 규모는 실수의 평균이 0.1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였음.

3. 未來 建築教育의 方向

사회 각계에서 대학 건축교육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대학의 문제점을 상호 연관시켜 볼 때 건축공학(학)과가 이대로 정체되어 있을 수는 없다. 조직, 운영, 교과과정, 인적 상황, 시설 환경 등이 획기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외국 대학의 건축교육 추세와 건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건축인들의 요구 등을 고찰함으로써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발전 계획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外國大學의 現況

우리나라 대학의 건축교육은 공과대학에 속한 건축학과 또는 건축공학과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공과대학에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대학 또는 독립된 학교에서 수행되는 등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건축이 그 사회 또는 국가에서 가장 기

본적인 주거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사회나 국가의 문화적 특성과 전통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교과과정도 국가마다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것은 그들의 사회에 적합한 건축의 실현을 뒷받침하면서 창조적이고 합리적으로 건축활동을 할 수 있는 장래의 건축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초과정에 충실하면서 학생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게 교과과정이 편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쳐 온 미국·프랑스·독일 및 일본을 대상으로 건축교육 교과과정을 살펴 보기로 한다.

① 미국 대학의 건축교육

미국 대학에서의 건축교육은 그 과정이 다양하고 대학마다 특성을 살리고 있어서 한 대학만을 고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수 연한은 5년제가 대부분이나 대학에 따라 6년제와 4년제도 있다. 6년제 대학은 졸업과 함께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경우가 많고, 4년제는 건축공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5년제는 건축계획·설계와 건축공학 양 전공이 균형을 이루는 교과과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교과과정은 우리처럼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특색을 지니고 있고 선택과목이 폭 넓게 설정되어 있어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人的 상황도 적정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건축 전공 분야별 공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학과의 조직체제는 한국과 같이 공과대학에 속하여 있는 경우도 있으나 건축대학으로 체제를 두고 있다.

② 프랑스 대학의 건축교육

프랑스 대학의 건축교육은 대학교(Université)에서 행하여지지 않고 대학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건축학교(Ecole d'Architecture)에서 이루어진다. 건축학교의 수학 연한은 6년이었으나, 1984년부터 5년 과정으로 바뀌었다. 교육과정의 세부과정은 건설부에 의하여 작성되며 이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2개의 단계로 나뉜다.

- 1단계 : 방향설정 및 기초형성 단계

여기서는 건축을 공부하는 데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습득하고, 공간을 구성하고 이해하는 기초지식을 전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축과 관련된 현 세계와 사회경제 구조를 이해시키고 건축과 관련있는 타 분야 학문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이 단계는 8개의 세부과정으로 구성되며 연간 이수할 수 있는 것은 4개의 과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회의에서 특별 인정하는 경우에는 2학년제에 5개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각 과정에서의 합격 여부는 전체 교수 심사회의에서 결정되며 시험은 매년 중간고사와 기말시험을 치른다. 8개의 과정을 전부 이수하면 최종적으로 교수회의의 심사를 거쳐 합격이 결정되고, 합격된 학생에게는 문교부장관과 건설부장관 명의로 건축기초과정 이수학위(Le diplôme d'étude fondamentales eu architecture: D.E.F.A)가 수여된다.

· 2 단계 : 국가 건축사 면허(diplome d'architecte D.P.L.G) 단계

여기서의 교육은 직업적인 다양성에 적응하고 사회적·경제적 조건 변화에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과학적·기술적·예술적·문화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건축인으로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시키고 과학적·기술적인 창의성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단계는 12개의 세부과정과 졸업작품으로 구성되며 3년에 걸쳐 이수하여야 한다.

연간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은 5개 이하이며 각 과정에 대해서는 '방향설정 및 기초형성 단계'에서와 같이 교수회의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또한 이 단계의 교육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되며 실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외부실습은 실무와 관련하여 기초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별로 구성된다. 졸업작품은 건축에 관련된 논문과 도면으로 구성되며 공개적으로 심사된다. 공개심사에서는 내용의 평가와 더불어 독자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능력도 심사한다. 모든 과정을 이수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건축사 면허(Le diplôme d'architecte diplôme par Gou-

vernement)가 건설부장관 명의로 수여된다.

③ 독일 대학의 건축교육

독일의 대학제도는 모두 국립으로서 두 가지 시스템으로 대별된다. 그 하나는 일반대학(Universität)으로서 이곳에서는 공과계통을 제외하고 모든 과정이 교육되고, 다른 하나는 공과대학(Technische Hochschule 또는 Technische Universität)으로서 공과계 교육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건축학과는 일반대학에는 없고 모두 공과대학에 속하여 있다. 종전의 편성은 일반적으로 공과대학 내에 계열별 학부(Fakultät)가 있고 학부 내에 학과가 소속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건축학과는 건설학부(Fakultät für Bauwesen) 내에 건축학과(Fachabteilung für Architektur)와 토목과(Fachabteilung für Bauingenieurwesen)로 양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영향을 받아 공대 내에서 건축학부를 독립시키려는 경향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독일 대학에서는 소정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였을 때 디플롬(Diplom)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합격한 학생에게 디플롬 학위가 수여된다. 디플롬 학위는 우리나라의 석사학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디플롬의 전 단계로는 포르디플롬(Vordiplom)이 있는데 보통 입학 후 4학기를 이수한 후에 취득할 수 있다. 교과과정은 강의(Vorlesung), 연습(Übung) 및 세미나(Seminar)로 대별되며 교수에 따라 강좌(Lehrstuhl)가 개설되고 강좌를 중심으로 세부 과목으로 구성되는 시스템이 많다.

④ 일본 대학의 건축교육

일본 대학의 건축학과 교과과정과 운영체제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한 예로 수학 연한은 구미와 달리 4년이며, 학과는 거의 모두 공과대학에 속하여 있다.

교과과정에서는 지진이 많은 관계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구조공학과 내진공학의 비중이 크며 건축계획, 환경, 구조, 시공 등 모든 분야가 다른 학과와 거의 관련을 갖지 않고 건축과 안에서 가르치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건축공학부(School of Architecture) 내에 전공 영역을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로 나누어

교육하고 있다. 즉, 건축공학과에서는 구조·재료·설비·시공 등 건축기술에 관련된 학문을 중심으로 전문화 교육을 하고 있으며, 건축계획 분야에서는 건축계획·건축설계·도시계획·건축사·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선택과목의 폭을 넓혀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참조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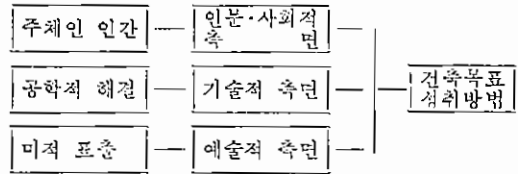
2) 建築工學(學)의 教育方向과 目標

건축학의 학문적 특성은 인문·사회적 성향, 기술적 성향 그리고 예술적 성향이 하나의 종합된 개발학문으로 완성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건축교육의 목표와 방향은 이러한 특성을 완성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인문·사회적 측면에서는 건축물 사용의 주체가 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적 영역이 설정되어야 하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실용적인 동시에 능률적인 합리성을 추구하고 기술축적 및 이의 효과적 이용이 가능한 학문적 영역으로 접

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술적 측면에서는 인간의 본능인 미적 표현의 영역으로 건축의 완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건축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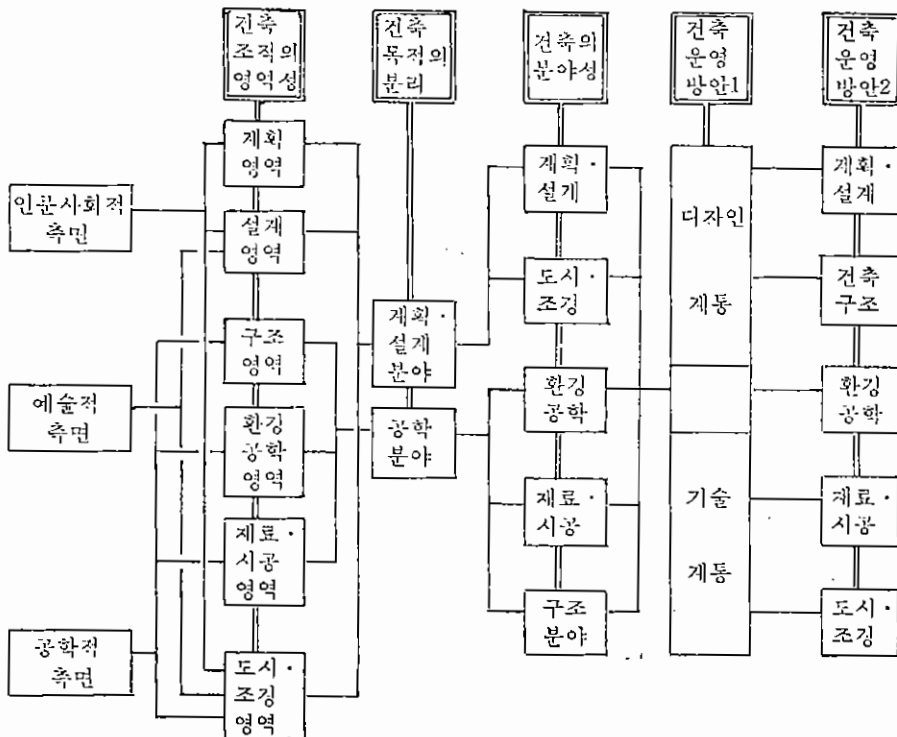
〈그림 4〉 건축교육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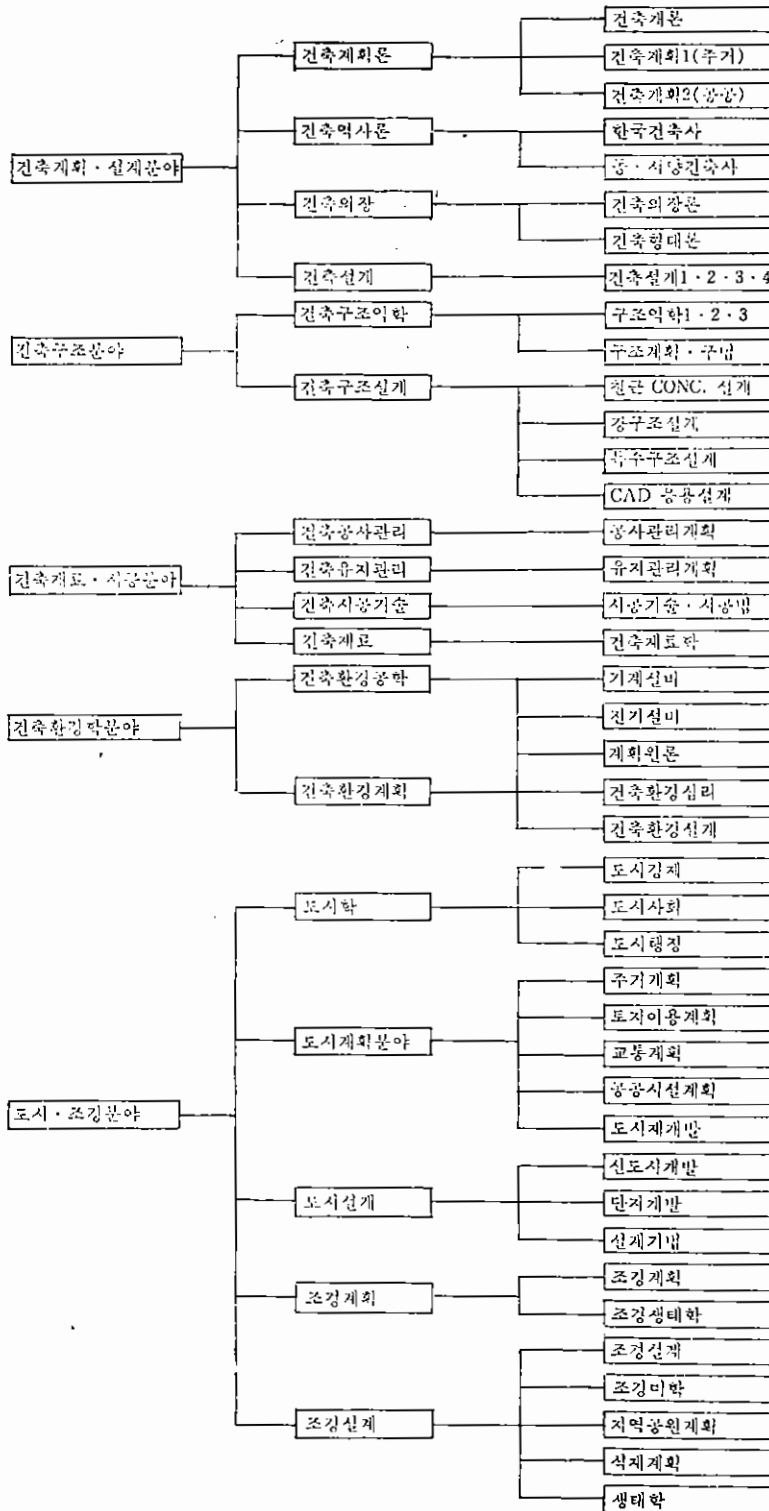
〈그림 4〉와 같은 기본목표와 방향에서 건축교육의 가치와 원칙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영역성과 이에 따른 건축의 목표를 분리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건축의 분야가 표출될 수 있다. 이것을 연계 관계도로 표시하면 〈그림 5〉와 같다.

이와 같이 건축교육은 크게 분류하면 디자인(건축계획·설계)분야, 공학(기술)분야로 운영체계를 분류할 수 있다. 좀더 세분화하면 5개 분야(건축계획·설계, 건축구조, 환경공학, 재료·시공, 도시·조경, 제

〈그림 5〉 건축분야의 영역성과 조직



〈그림 6〉 건축의 학문 영역



〈표 5〉 건축교육 발전 모델

모 델	형 태		교 과 과 정		조 직 운 영
			전 공 필 수	전 공 선 택	
M-1	선택과목의 폭을 넓게 하고 필수과목을 줄여서 각각의 전문성에 맞추어 교육을 받음		건축계획 건축설계 건축구조역학 일반구조	좌측에 있는 과 목 외의 전과목 (〈그림 6〉 참조)	현행
	한 과 내에 건축계획·설계 분야 전공, 건축공학 분야로만 나누고 학과분리는 고려치 않음				
M-2	건축계획·설계 분야와 건축공학 분야로 교육	건축계획· 설계과	건축계획 건축설계 건축의장 건축사	좌측에 있는 과 목 외의 전과목 (〈그림 6〉 참조)	두 개의 과로 분 리하되 상호 연 관된 과목은 지 원
		건축공학과	일반구조 구조역학 철근 CONC. 시공·재료 건축환경공학	좌측에 있는 과 목 외의 전과목 (〈그림 6〉 참조)	
M-3	5 개 분야로 나눔	건축계획설계과	〈그림 6〉	타전공 분야 교 과목(〈그림 6〉 참조)	5개과로 분리하 여 단일 건축대 학으로 독립
		건축구조학과	〈그림 6〉		
		건축환경공학과	〈그림 6〉		
		건축시공재료학과	〈그림 6〉		
		도시조경학과	〈그림 6〉		

료·시공, 도시조경 분야)로 운영 체계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건축교육의 방향과 목표에 맞게 교육이 진행되고, 건축의 전문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조직운영 체계가 요구된다.

3) 教科課程 編成과 運營

건축의 분야별 과목의 특성과 전문성 개발에 따른 교과목의 전개와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교과과정도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앞의 〈그림 6〉에서 건축의 학문영역을 분야별로 나누어 전개하였으나, 조직과 운영 체계에 따라 상호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이상의 고찰을 관련시켜 볼 때, 미래의 한국 건축교육을 다음과 같이 전망해 볼 수 있다. 단지 현재의 사회구조나 대학의 상황을 감안하여 갑작스런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단계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실현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현행의 운영 조직 체제는 그대로 놓고 전문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목 운영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즉, 선택과목의 폭을 대폭 넓혀 학생의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학과 내에서 전공별 분리가 가능하면 더욱 이상적이다.

둘째, 건축계획·설계 분야와 건축기술(공학) 분야로 학과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조직 운영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이기도 하다.

셋째, 건축교육의 목적에 맞는 5개 분야별로 학과를 분리하고 단위대학을 설립하여 모든 운영 조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이 방향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서 전문성을 고조시키는 상호보완 교육이 되어 건축학을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건축교육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던 앞의 <표 5>와 같다.

4. 結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건축교육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제한된 전공 학점 수와 명목상의 필수·선택과목 설정(선택의 폭이 없음)에서 제한된 부족한 전공학점(70~80 학점)에 따른 단일화된 학습으로 인해 보편화된 건축일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전문 건축인을 육성하는 대학 건축교육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3단계의 교육발전 모델을 제시하였다(<표 5> 참조).

둘째로 학생 수의 과다로 인한 교육의 마비와 부족한 교수 수(7.4명/대학)의 문제를 개선하여 학생 수를 40~50명/학과로 하고 교수 수도 10~18명(대학원 포함)으로 늘려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현재의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 각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로 교과과정의 운영에서는 건축의 기본과목을 저학년의 전공필수 과목으로 설정하고, 기타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그 폭을 넓혀 전문화된 전공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그림 6> 참조).

다섯째로 현재는 시설환경이 지극히 미약하므로 이를 위한 규모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로 외국대학의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최종적으로는 단일 단위 대학에서 운영·조직되어 각 학과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을 택하고, 학교마다 특성있는 운영체제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건축인을 만드는 교육과정과 방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 대학의 건축교육의 개발 방향은 전문 건축인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표 5>와 같은 3단계의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